

제21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 2. 16.(금) 10:00

5 분 자 유 발 언

(“울산쇠부리소리”의 국가무형문화재 등재를 기원하며)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의 회

(이 선 경 의 원)

- ‘울산쇠부리소리’의 국가무형문화재 등재를 기원하며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2·3동, 더불어민주당 이선경 의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인 판소리, 강강술래, 아리랑.

이 세 가지에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국가무형문화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울산 북구의 자랑도 곧 추가될 것 같습니다.

울산 북구 달천에서 전승되어 온 ‘울산쇠부리소리’가
지역 최초로 국가무형유산 신규종목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울산쇠부리기술과 함께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된 지 5년 만의 일입니다.

울산쇠부리소리가 처음부터 관심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은 지난해 5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울산쇠부리소리'의 국가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국회의사당 앞 중앙잔디광장에서는
울산쇠부리소리 최초 국회 공연이 펼쳐져 뜨거운 열기가
국회에 울려 퍼지는 장관을 이뤄냈습니다.

울산쇠부리소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노력이 모여 국가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울산쇠부리소리는 철이 많이 생산되기를 바라는
'풍철기원의례'로써 국내에는 단 하나밖에 없어
역사적 가치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가사나 악보가 전해지지 않은 채
구전으로만 전해져 소멸 위기를 겪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1981년, 마지막 불매꾼 故 최재만 옹의
구전노동요가 채록되면서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관리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우리 울산 복구는 한반도 전통 제철 기술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달내, 현재의 달천철장에서는 삼한시대부터 쇠를 다루었습니다. 철 성분이 다량 함유된 광물을 녹여 쇠를 뽑아내는 제련 작업을 ‘쇠부리’라 합니다. 쇠부리는 조선 후기 구충당 이의립 선생이 토철 (흙으로 된 광석)에서 쇠를 추출하는 ‘토철 제련법’을 발명하며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이 쇠부리 과정을 춤과 노래로 만들어 낸 것이 바로 ‘울산쇠부리소리’입니다.

고무적인 것은 ‘울산쇠부리소리’의 근간인 울산쇠부리기술이 지난해 8월 문화재청의 ‘2024년 미래 무형유산 발굴, 육성 사업’에 선정되어 연간 최대 2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전통제철기술인 ‘울산쇠부리기술’.

국내 유일의 제철 노동요인 ‘울산쇠부리소리’.

‘달천철장’과 ‘대안동 쇠부리터’와 같은 제철 유적,
조선의 철강왕 ‘이의립 선생’과

마지막 불매꾼 ‘최재만 옹’과 같은 역사적 인물까지...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진 ‘울산쇠부리문화’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현대자동차,
세계 1위 선박 회사인 현대중공업 등
울산 산업화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이같이 유형과 무형을 아우르는 복합제철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우리는 울산쇠부리역사문화조성을
서둘러야 합니다.

울산은 지난 2022년 12월,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정 문화도시’에 선정됐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5년간
최대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난 60년 동안의 산업도시 이미지를 넘어서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기 위해
울산시를 비롯한 5개 구·군은 ‘문화관광도시 울산’으로
변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중심엔 울산쇠부리의 모태 ‘달천철장’이 있습니다.

달천철장 유적공원 인근에 철기와 관련된 역사적 상징물 전시를 위한 전시실, 철기문화 체험교육관, 쇠부리 관련 문화재 보존을 위한 수장고와 달천철장 옛터를 재현한 수직갱도·수평갱도의 현장 체험형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미래 세대에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를 전승해야 합니다.

또한, 20회를 맞은 쇠부리축제를 업그레이드해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합니다. 덧붙여, ‘쇠부리재단’을 설립하여 우리 복구의 쇠부리 문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유일무이한 ‘울산쇠부리소리’가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와 울산시, 우리 복구의 긴밀한 소통이 이뤄져야 합니다.

역사는 한순간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울산쇠부리소리’의 국가무형문화재 등재 노력에 대한민국 국회와 울산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울산쇠부리소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